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초의가 제주를 떠난 후에도 코와 입이 풍화로 고통을 당했던 추사였다. 1844년 3월 20일, 본가에 보낸 그의 편지에는 "나는 허가 혈고 코에 난 혹으로 여전히 고생하면서 (이 병은) 5-6개월을 끌고 있다. 설령 약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다하더라도 어찌 이처럼 지루하게 고통을 견뎌야한단 말인가(吾瘡鼻癭 尚此作苦 彌延五六朔 雖係醫藥之無以爲之 而寧有如許支離難堪者耶)"라 한 것으로 보아 병마로 힘들었던 그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다. 체념한 듯하지만 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초의에게 산이화를 부탁한 것에서 드러난다. 1844년 5월 15일, 초의가 보낸 편지와 산이화를 받고, 그 감동을 숨기지 않았던 추사의 편지는 <벽해타운첩>에 수록되었는데, 그 내용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다삼매' 체득의 예 보여줘



벽해타운첩

"그대와 차 달이던 때 회상은 앞에 속진이 사라진 듯" 추사의 고백... 두 빛의 지향점 시사

뿐입니다. 백작이나 되는 열기와 냉기로 사람을 죽이는 독한 기운도 이와 같을 것에 불과하니 맡겨 둘 뿐입니다. 차를 만드는 시기도 이미 지났는데, 얼마나 만드셨습니까. 차의 색깔은 부족함이 없는지요. 축축하고 더운 곳으로 (차)보내주시는 것은 끝내 마음에 소홀함이 없겠지요. 반드시 필요한 것을 살피심이 어떻겠습니까. 허 소치는 근래 어디에 있습니까. 오래도록 막연히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만휴 등은 무탈한가요. 나대신 소식을 전해주세요. 나머지는 이만 1844년 5월 15일 나산(纒開軒衲之見格 虛歸不勝愧歎 即從州判獲見梵函 副以辛夷 此是日以懸望者 雖少尚得需之 目下何等幸甚 慈悲所及 亦切感誦 更惟 禪況連

吉 安禪藤架之下 無世間熱惱濁惡歎 回憶去年此時 並榻看偈 煮茗品水 忽忽若前塵 此樂殊不易得 寧不悵悵 賤疾口鼻風火 終不除滅 今且半年餘矣 一以任之 百丈之寒熱熾熾 亦不過如是 任之而已 茶候已過 製得幾鈞 色香無欠 瘴天寄來 終有慮損 必須量裁 如何如何 許癡近在何處 漠然無聞可苑 万休輩能無恙 爲我問訊也 留續具 不宣 甲辰 五月十五日 那山)

<벽해타운첩>을 통해 처음 알려진 이 편지는 본가의 편지보다 2달 뒤에 보낸 것으로, 당시의 정황을 유기적으로 그리고 있다. 특히 그가 초의와 함께 지냈던 "지난 해 이 무렵 그대와 함께 (그대의) 글을 살펴보고, 물을 평하여 차를 다리던 때를 회상해보니 눈앞의 속진이 사라진 듯합니다"라고 한 내용은 이들의 제주 일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셈이다. 바로 "지난 해 이 무렵(1843년 5월)", 뜻 맞는 두 빛의 의기투합의 실제, 시도 있고, 첫 물을 골라 차를 다린 정황은 "전다삼매(煎茶三昧)"의 체득을 보인 예라 하겠다. 이런 일을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눈앞의 속진이 사라진 듯하다"는 추사의 고백은 그들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 지를 드러낸다. 따라서 적거지의 타의적인 은일(隱逸)도 은일이다. 난세에 자신을 수양하는 처세법, 은일은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이상향이었다. 비록 추사의 은일은 자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차를 향유했던 그의 멋은 일탈(逸脫)의 극치(極致)라 하겠다.



박동준(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박물관엔 과거와 함께 문화의 미래가 있다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前 삼성출판사 회장)

"문화란 인류만이 누릴 수 있는 '가치' 들을 말하는 것이며, 문화유산이란 그 가치들의 결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발전시켜온 선학의 지난날과 앞으로의 기대를 생각하는 것이 저의 일이고, 또 앞으로의 일입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74). 서울 정동동의 중명전(그의 집무실)에서 만난 그는 '문화계 대부'로 불리는 자신과 자신이 결집해 온 '문화'에 대해 그렇게 설명했다. 중명전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던 곳으로 역사적인 공간이다. 그는 늘 문화유산 속에서 살고 있었다. '문화계 대부'로 불리는 그런 그가, 지금까지 시 해운 일과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이고, 그런 그의 인생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6월 26일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서점집 아들의 꿈

그는 서점집 아들이었다. 전남 목포의 작은 동네에 자리한 대양서점, 살림집에 딸린 서점이었다. 그는 유년기와 청년기를 책 속에서 살았다. 다양한 책들을 읽을 수 있었다. 지금 그의 이름 뒤를 따라다니는 '문화'는 작은 서점 한 쪽에서 움튼 것이다. 다양한 책 속에서 접한 새로운 '세계'가 그를 '문화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했다.

어느 날, 고등학생이었던 그는 훗날 최고 작가 반열에 오르는 윤정광을 만나게 된다. 당시의 모두 사는 게 어려웠다. 역시 고등학생이었던 윤정광도 마찬가지였다. 책을 살 형편은 되지 못했고 책은 읽고 싶었다. 그는 할 수 없이 숨어서 책을 읽고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 아들은 숨어서 책을 읽고 있는 그 친구를 불렀다. 그리고 미안해하는 그 친구에게 보던 책을 포장해 주며 가져가서 읽으라고 말한다. 그때부터 문화청년 윤정광은 서점 아들의 배려로 읽고 싶은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게 된다. 그때부터 그는 두 살 정도 어렸던 윤정광과 형제처럼 지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 한다. "너는 문학을 좋아하니 훗날 최고의 작가가 되어라. 나는 책을 파는 집에 태어났으니 우리나라 최고의 출판사를 만들겠다." 그의 꿈은 '출판사 대표'였다. 그리고 그 꿈은 '문화계의 대부'로 가는 첫걸음이 된다. 그는 결국 출판사의 대표가 된다. 삼성출판사. 형님이 세운 출판사다. 그는 부산 지사장을 거쳐 대표이사에 올랐다. 그리고 회장직을 역임하며 30년 넘게 출판사를 이끌었다.

수집가를 수집한 '수집가'

1990년 그는 삼성출판박물관을 연다. 출판 관련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에는 국보 265호 <조조대방광불화엄경>과 보물 758호 <남명천화상승종도가>, 보물 745호 <월인석보>, 보물 877호 <금강반야바라밀경> 등 고려 불경과 금속활자 인쇄 전적 등 40여 만점이 전시되어 있다.

출판사의 꿈을 이룬 그는 청년기에 서점에서 꿈꾸던 '문화'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진정한 문화의 원천은 무엇일까. "기업과 개인이 평생 수집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만들어 사회와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문화의 원천입니다. 여기에 미래지향적 문화의 탄생을 기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박물관을 세우기로 했고, 탄생한 것이 삼성출판박물관이다. 그는 70년대부터 민중박물관협회를 만들며 박물관을 준비했다. 당시 그의 행보를 알아본 <남명천화상승종도가>의 소장자가 그를 찾아와 <종도가>의 진정한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며 그에게 <종도가>를 맡긴다. <종도가>는 당초 금속활자로 인쇄한 것을 고려고종 26년(1239)에 목판으로 복원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1377년 인쇄>보다 최소 142년 전부터 금속활자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다. 그렇게 소중한 문화재를 간직하게 된 그는 박물관 건립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다지게 되고 삼성출판박물관을 열게 된 것이다.

그는 성보박물관 개관법회는 물론 특별전이 열리는 자리는 원근을 가리지 않고 찾았다. 본인의 말처럼 선학의 지난날과 문화의 미래가 걸려 있는 박물관은 그가 살펴야 할 부분이고 자식이었다. "성보박물관 개관은 단순한 현상일 수 있지만, 사람에서 불교문화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확장된 불교관이 꽃을 피운 것이다.

'확장'의 희망

"우리 문화재의 70% 이상이 불교문화재입니다. 우리의 문화재를 이야기 할 때 불교문화재를 빼면 이야

출판사에서 박물관으로

박물관으로 영역을 넓힌 후 그의 문화적 유전자도 확장되기 시작한다. 자신의 박물관을 열고 난 그의 문화적 욕구와 관심은 한국 박물관 전체로 확장된다. 훗날 그의 이름을 따라 다니게 되는 말 중의 하나가 '박물관' 일 만큼 '박물관'은 그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된다.

우선, 그는 유물을 발굴하고 소장하고 있는 수집가들을 찾아 나선다. 그는 수집가들을 수집한 것이다. 그것이 그의 '수집'의 반경을 넓힌다. 그는 진정한 '수집가'였고, 그것이 훗날 그의 이름 뒤에 '박물관'이란 부제를 달게 한다. 그는 한국 박물관 100년사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간 동안 오로지 박물관을 위해 뛰어 다닌다. 자신의 박물관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박물관을 자신의 박물관으로 생각한 것이다. 문화재를 찾아다니고, 수집가를 찾아다니며 박물관을 전시장을 채우는 일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공립, 사립, 대학박물관에서 열리는 수많은 전시회를 찾아가 일일이 축사를 전하고, 각종 전시, 출판, 학술 관련 행사 등 초청받은 행사에는 빠지지 않았다.

그 안에 불교가 있었다

그렇게 '박물관'은 그의 삶을 이끄는 커다란 축이 되었다. 그리고 그 큰 축 속에는 또 하나의 큰 축이 있

기업 서점서 다양한 책 보며

'출판사' 꿈꾸고 '문화' 생각 키워

삼성출판박물관 개관

'문화계 대부' '박물관' 그의 별칭

"우리문화재 70% 이상 불교"

불자들의 문화재 보존은 당연

었다. '불교'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절에 다녔다. 그에게 불교는 매일 받는 밥상과 같았고, 의복과 같았다. 자연스러운 가정의 문화였던 것이다. 그는 동국대에 입학했다. 그는 백성욱 박사로부터 <금강경>을 들으며 막연히 대해왔던 불교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인식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확장된 그의 문화적 영역 속에는 '불교문화재', 성보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된다.

그 후 그의 또 하나의 시선은 성보박물관으로 향한다. 1999년 통도사성보박물관 개관을 시작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20여 곳의 성보박물관의 탄생을 크고 작은 역할을 한다. "천년고찰 자체가 박물관이긴 하지만 사람 내 박물관이 건립된다는 것은 그만큼 성보에 대한 보존관리 인식이 불교계에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보박물관 개관법회는 물론 특별전이 열리는 자리는 원근을 가리지 않고 찾았다. 본인의 말처럼 선학의 지난날과 문화의 미래가 걸려 있는 박물관은 그가 살펴야 할 부분이고 자식이었다. "성보박물관 개관은 단순한 현상일 수 있지만, 사람에서 불교문화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확장된 불교관이 꽃을 피운 것이다.

'확장'의 희망

"우리 문화재의 70% 이상이 불교문화재입니다. 우리의 문화재를 이야기 할 때 불교문화재를 빼면 이야

Advertisement for SHC candles. Features various candle types like '강화사자발악썩양초' and '한봉밀납양초' with detailed specifications. Includes a website URL www.shcandle.com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HC Candle Co., Ltd.



1990년 6월 29일 삼성출판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한 김종규 이사장(사진 왼쪽 첫번째)



김종규 이사장은 ... 1939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다. 목포상고를 나와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기업인 삼성출판사에서 사장과 회장을 역임하고 1990년부터는 삼성출판박물관 관장을 맡고 있다. 1999년 한국박물관협회 회장을 맡아 8년 간 활동했으며, 지금은 명예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통령 표창, 국민훈장 목련장, 일백문화대상 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 자랑스런 박물관인상 등을 수상했다.

기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소중한 불교문화재 가운데 국가나 지자체에 등록, 지정된 문화재는 많지 않습니다. 인식표를 달지 못한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계승은 우리 세대가 실천에 옮겨야 할 숙제입니다.”

2010년 4월 그는 문화유산국민신탁 2대 이사장에 취임한다. 그는 국민과 불자들에게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07년 설립된 문화유산국민신탁은 1895년 영국에서 시작된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운동의 한국판으로, 국민(개인, 기업, 단체)의 기부, 증여 등을 통해 위탁받은 재산,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등을 취득하고, 이를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참여 방식으로 영구히 보존, 관리하는 특수법인이다.

그는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 야말로 그 동안의 '확장'을 집약적이고 총체적으로 회향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에 가면 괴테 하우스는 반드시 찾는 명소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소설가 현진건의 집이 개발에 밀려 헐리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찾아 국민의 힘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는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그렇게 총총하게 이어지는 인연을 통해 문화유산국민신탁의 회원 수를 늘려가고 있었다.

"아직은 '문화유산국민신탁'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법인의 존재를 알고 취지를 홍보하는 것이 첫 번째 저의 임무입니다."

그는 기자의 이름도 회원명부에 올리겠다고 명명한 장을 더 달라고 했다. 그는 2010년 그가 이사장에 취임했을 당시 300명이었던 회원 수를 현재 4000명으로 늘려놓았다.

"미래 후손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물려주기 위해선 문화유산국민신탁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보존하는 데 앞장서는 불교계와 불자들이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화의 '미래'
"방글방글 부처님 세 분이 마치 합창이나 하듯이 함께 웃고 계신다. 서산 산중턱에 동향을 하고 서 있는데 아침에 해가 뜰 때는 더 불이 터져 나갈듯한 함박웃음을 짓는다. 보는 각도와 조망에 따라서 조금씩 미소의 차이가 있어도 하루 종일 웃고 지금까지 1400년을 그 자리에 서서 변치 않는 미소로 우리들을 맞이하고 있다."

올 2월, 그는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충남 서산의 마애삼존불상을 찾는다. 그날 일간지에 실린 칼럼(이배용의 우리 역사 속의 미소)을 읽고 나서다. 몇 번 좀 가보았지만 칼럼을 읽는 순간 그는 1400년의 미소가 다시 보고 싶어졌다. "7세기 초 백제시대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절이면 백제가 기울어져 가던 때였다. 한성에서 공주로, 다시 부여로 밀려오면서 재기의 희망을 잃지 말라는 평화의 미소, 백제의 미소다. 두꺼운 화장함을 조각해 아름다운 미소의 부처님을 세운 이름 모를 석공의 마음이 좌절하고 분노했다면 이렇게 오늘날에도 다가서면 마음의 영원한 안식을 주는 따뜻한 미소를 전할 수가 없다. 바로 서해안으로 가는 길목 산중턱에 서서 서해안을 건너가려는 길손에게는 잘 다녀오라는 평안의 미소로, 서해안을 건너온 손님에게는 잘 왔다는 환영의 미소로 화답하는 마음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마애불 앞에 선 그는 칼럼 속의 문장들을 떠올리며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신비의 미소에 또 한 번 매료됐다. 역사가 남긴 박물관 앞에서 그는 지금까지의 신념에 다시 한 번 신념을 더했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담고 있는 박물관은 우리 문화의 '미래'라는 것을.

글·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불국사석가탑 특별전에 참석한 김종규 이사장(오른쪽 두번째)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원들과 함께(사진 중앙)

전법일기

어린이·청소년 법회-1

"어린이법회 교사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2011년 6월 어느 날 젊은 불자 두 사람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반가워서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더니 어느 불교유치원의 원장이 이야기하더라고 했다.

2008년 초, 내가 처음으로 주지 소임을 맡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사실은 어린이법회였다. 모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어린이법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 하나는 유능한 교사, 다른 하나는 재정적 뒷받침이다. 재정 문제는 내가 주지로서 사찰을 운영하는 위치에 있으니 어떻게든 해나갈 각오가 되어 있었다.

문제는 교사였다. 유능과 무능은 일단 두고, 교사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신도들 중에 어린이법회 교사 경력을 찾아보았으나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절에서는 어린이법회를 한 적이 없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다른 절에서 법회를 한 적이 있는 사람도 없었고 신도 가운데 젊은 현직 교사조차 없었다. 대학생이라도 구하려 했지만 이마저 구할 수 없었다. 교사를 구하지 못한 채 1년을 그냥 흘려보냈다. 불교는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2009년 여름이 다가왔다. 이(齒) 아니면 잇몸이라고, 나는 젊은 여성 불자 네 명을 뽑아 거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여 제주도로 연수교육을 보냈다.

2009년 여름이 다가왔다. 이(齒) 아니면 잇몸이라고, 나는 젊은 여성 불자 네 명을 뽑아 거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여 제주도로 연수교육을 보냈다.

제주도에는 이십 수년 동안 어린이법회를 해온 비구니 인성 스님이 방학 때마다 캠프를 하고 있

아이가 자라면 어른이 된다



그림·박구원

젊은 불자 두 명이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2년이 흐른 후였다. 당시 서른 살쯤 돼 보이는 여성 불자는 대한불교청년회 대구지구 권미아 회장였고, 그보다 열 살쯤 나이가 더 들어보이는 남자는 대불정 고문, 정승기 불자였다. 내가 그들에게 왜 어린이법회를 하려는지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대구 사찰에 불교청년회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의 행사를 해봤으나 이삼십대 젊은 불자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불교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늦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린이법회를 활성화시킨다면 청소년법회를 거쳐 불과 10년 후에는 청년회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린이법회를 의욕적으로 할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스님께서 오래전부터 교사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좋았다. 불교청년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린이법회부터 하겠다는 그들의 긴 안목이 좋았다. 문제는 그들이 결코 짧지 않는 그 세월을 한결같이 할 수 있느냐였지만, 일단 그들은 의욕이 넘쳤다. 여름 캠프를 마친 그들은 매주 일요일 어린이들을 절로 불러들였다.

내가 보성선원에 오고 나서 3년 반만에 드디어 어린이법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우리절이 위치한 송현1동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모두 1,200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100명 정도의 것을 1차 목표로 정했다.

한복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청년회 법회는 청소년 법회, 청소년 법회는 어린이 법회가 관건

었으므로 거기에 참여하여 배워오도록 했다. 연수를 다녀온 그들은 38명이 참석한 1박 2일의 어린이 캠프를 무난히 잘 치러냈다.

나는 캠프를 계기로 매주 정기법회를 하길 원했으나 캠프를 치르느라 녹초가 된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손사래를 쳤다. 교육경력이라고는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친 것이 다였던 이 평범한 가정주부들은 얼마나 긴장했는지 법회를 하라고 하면 절에 나오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나는 여쩍 수없이 다음 인연을 기다려야만 했다.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오색 로고전등

판공대주전등

주름 등

왕정기전등

칼라로카시전등

영가 등

공단 등

그림 영정등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계는 범당 연등 설치도 바른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흥은사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영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암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 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